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가정

월간 [월드뷰]는 2012년 중심 주제인 '가족'에 관한 연속 특집을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기독교세계관 운동가인 송봉호 장로로부터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론적 정리와 더불어 삶의 현장 속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저 그런 가정

나는 강연이나 설교를 하거나 글 쓸 때, 가능하면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철저히 사적인 공간을 세상에 드러내는 건 마치 속옷을 보이는 듯 좀 어색하다. '내 자랑하는 자는 깡그리 미쳤고, 자식 자랑하는 자는 반쯤 미쳤다'는 말을 나는 어느 정도 믿는다. 그렇게 광고해 놓으면, 다른 남자들이 탐내서 그 날 아내 얻어 가면 어찌되고, 자식 자랑도 그렇다. 요즘 자기 아이들은 모두 천재라고 믿는 부모가 한 둘이 아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심하면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뿐더러, 괜히 질투만 받는다. 그렇다고 자신의 가정을 홍보는 것도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스스로 못났다고 자폭하는 셈이니 말이다. 어쨌든 특별히 상담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정 문제는 소중한 보물처럼 꼭꼭 숨겨두고 가족끼리만 즐기는 것이 최선이다.

사실 우리 가정 이야기는 일부러 시간 내어 읽고 들을 만큼, 도음 되거나 가치 있는 게 많지는 않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젊은이들에게는 무미건조하고 고리

해서 꼬집어 쓸 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건강에 큰 문제가 있으면 관련해서 할 말이 많아진다. 같은 맥락으로, 가정에 대해 할 말이 따로 없는 건 우리 집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속상한 일도, 크게 걱정하거나 싸울 일도 없으니 좋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이 자기 가정 얘기를 장황하게 하기 시작하면, 내용이 좋은 나쁜든 나는 좀 불안해진다. '저 사람 가정에 후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냐?' 하고, 나는 가정이 행복해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잘 안다. 때문에 가정에서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좀 측은하게 느껴지고 신경이 쓰인다. 가정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은 가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많기 때문이라다.

보수적인 부부관계

다른 면에서는 안 그런 거 같은데, 우리 부부관계는 전형적인 한국 부부처럼 매우 보수적이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서로에게 "사랑해"라는 말 한 마디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은 저 서양의 '상 것'들이나 아직 젊지 않은 젊은 것들이나 할 소리지, 젊잖은 양반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다.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어른이어서 그런 것 같아. 일생동안 말(言)을 가지고 살았다 해도 과연 어릴 만큼 내겐 말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역시 "용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란 속담에 충실했던 것 같다. '사랑한다고 꼭 말로 해야 하나?'

물론 부부가 마주 앉아서 오순도순 재미있게 이야기 하는 경우도 흔치는 않다. 나는 "아(아)는?", "무재(무재)", "자자!" 하루 세 마디만 하는 경우도 사나이의 전통에 비교적 충실하다.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도 아내에게 상세히 말하지 않는다. 좋은 일은 가끔 보고하지만 내 자랑은 더욱 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물으면, 가족에게도 자기 자랑은 좀 가볍게 보이기 때문이다. 기분 나쁜 일은 더더욱 말하지 않는다. 나 혼자 불쾌한 걸로 충분하지. 가족까지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잖은가. 걱정스럽고 안 좋은 일은 서로 나눠야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웬만해서는 혼자 견디고 해결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공활히 여겨주신 덕에 아직까지 내 정신건강은 양호하다. 아내는 나보다 더 입이 무겁다. 그래서 가끔은 정말 껍질 낚을 듯한 일인데도 며칠 후에야 말하는 경우도 생긴다. 우리의 이런 모습에 어쩌면 그렇게 재미없이 사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별 탈 없이 잘 산다. 서로 철저히



같이 믿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신뢰만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되고 모든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순조로운 자녀교육

아이들도 별로 속을 썩이지 않기 때문에 평범하게 잘 지낸다. 그렇게 많이 진소리 하지도 않았고, 대학 진학으로 큰 소동을 일으킨 일도 없다. 애들한테 내가 가장 많이 한 잔소리라면 “애들이, 잠 좀 자! 좀!” 정도?

애들이 어릴 때는 텔레비전을 집에 두지 않았던 게 자녀 양육에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나는 영상매체가 상당할 정도로 사람의 상상력과 사고력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물론 아이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응하지 않았다. 자랄 때 불평하던 큰 아이 역시 지금은 자기의 두 팔을 위해 TV를 없애버렸다. 나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과 어릴 때 했던 항의가 첩없는 것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셈이다. 이렇듯 텔레비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우리 가문의 전통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내가 텔레비전에 비교적 자주 출연한다는 건 역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어릴 때 교회에서 주일성수에 대해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필요일에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주일에는 공부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에도 실패할 뻔 했다. 하지만 자녀들

에게는 그 정도로 엄격하게 주일성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에비와의 경쟁심 때문인지 몰라도 상당히 철저히 주일을 잘 지켰다. 큰 아이는 거대한 외고 면접이 주일이라 그 학교 가는 걸 포기했고, 고 3 때도 주일 특별수업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하남에서 이를 가강히 여기셨는지 원하는 대학에 합격 시켜 주셨다. 사교육을 받거나 재수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물론 자기 능력에 맞는 학교에 지원했기 때문에 무리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대학입학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기에 혹 잠고가 될까 해서 말한다.

자녀들의 유학 관련 오해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교수 월급으로 어떻게 아들을 해외에 유학시킬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 지면을 통해 해명이 되면 좋겠다. 우선 큰 아이는 벨기에에서 내가 교수로 있던 대학에 다녔기 때문에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아이 대학교육을 공짜로 시킨 것이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그런 특혜가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벨기에는 박사과정의 학생이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면, 그 여비 및 호텔 숙박비까지 보조해 준다. 우리 큰 아이는 그 혜택을 받고 벨기에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던 것이다. 생활비는 한국 회사 지사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곳 한국인 가정 자녀들에게 과외를 하면서 벌어 충당했다고 한다. IMF때 생활비가 부족해서 고생 많이 했다는 사실을 최

근에야 들고는 그 때 돈을 보내주지 못한 것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둘째가 다니는 학교는 내가 근무하던 곳이 아니었다. 그래서 학비를 전액 지불했는데, 우리 가족 검소하게 살기 때문에 대학교수 월급으로도 어려움 없이 공부시킬 수 있었다.

아끼는 가정경제

우리 가정에 좀 특별한 것이 있다면, 가능한 한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아낀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소비를 절제한다. 진기와 돈을 아끼기 위해 여름에 에어컨도 두지 않고, 겨울에는 비교적 춥게 살고 있다. 세수에 사용한 물은 변기에 부어 다시 사용하고, 빗물을 받아 보관했다가 청소일에 뿌린다. 소형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손님이 없으면 외식도 거의 하지 않는다. 사치품을 사지 않을 뿐 아니라, 누가 비싼 물건을 선물하면 다시 선물하거나 바자회에 내 버린다. 우리 식구 몸에는 고급 음식이나 사치품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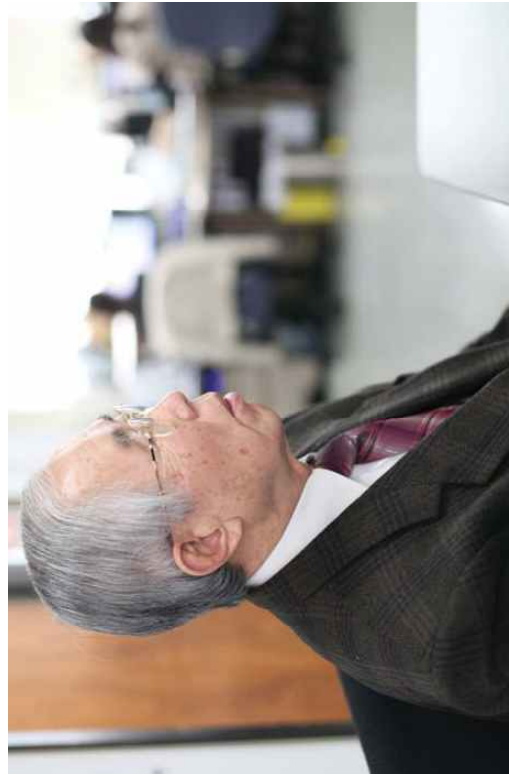
이렇게 유별난 이유는 내가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였고, 그 때는 모든 사람이 물자를 아끼는 시대였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다 우리 부부가 네덜란드에서 받은 훈련도 크게 작용한 것 같다. 현재 유럽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지만, 네덜란드는 독일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경제를 누리고 있다. 흔히 자본주의

에서는 ‘소비가 미덕’이라 하고,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린다. 허나 네덜란드와 독일은 소비절제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들이다. 그런데도 경제가 그렇게 튼튼할 걸 보면 소비가 미덕이란 말에 회의가 간다.

검소와 절제의 습관 덕에 우리 집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연금으로 생활하고도 남아. 기부와 헌금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 나의 세계에는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데, 충분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쓰인 명구 패가 있다. 그걸 볼 때마다 ‘만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나는 충분히 갖고 있잖아.’ 하는 생각이 든다. 식구들 중 누구도 우리가 가난하다거나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우 큰 부자다. 물론 마음만 그렇게 먹는다 하여 하여 모두 우리처럼 만족해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소득이 너무 적어 고통 받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닐까 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하나만큼씩 먹고 입고 쓸 것을 충분히 주셨다 믿고 감사한다. 실제적으로 어렵거나, 지금보다는 좀 더 넉넉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가정은 많다.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할 만큼 마음 이 풍족할 수 있다는 건 어지간히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러기에 하나씩께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한다. 6

손봉호 (사)기독교세계문화운동역회 이사장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할 만큼이 풍족할 수 있다는 건 어지간히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러기에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